

<이탈리아篇>

먼티디슨會社드네가니研究所

—化學分野權威 獨立採算組織—

드네가니研究所는 먼티카치니와 에디슨이 1966년에 합병한 먼티디슨化學會社 所屬으로서 79년에 全株式먼티디슨所有 法人組織으로 分立하였다.

먼티디슨會社は 이탈리아 最大의 化學會社이며 유럽에서도 BASF, 헤커스트, 바이엘, ICI 에 다음가는 5位그룹 企業으로서 從業員만도 20 萬名을 넘고 있다. 이같은 大會社의 연구소일 뿐 아니라 먼티디슨그룹會社의 中央研究所로서 그 責任을 完遂하고 있다는 데에 存在性이 窺보 인다.

연구소의 活動範圍은 먼티디슨그룹 各企業에 대한 開發研究, 新製品試作, 既存製品의 改良, 各事業部附屬研究所에의 支援 등이 中心이 되어 있으나 醫藥品分野는 다른 연구소에서 取扱하고 있으므로 同分野를 除外한 全化學分野가 研究對象이 된다.

화학분야라 할지라도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研究對象幅은 매우 넓으며 확인케미컬 분야에서는 플라스틱用 添加劑, 充填劑, 食品, 종이에 쓰이는 各種 添加劑 등이 主宗을 이루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用 添加劑 및 充填劑로는 플라스틱에 効果的인 電氣絶緣特性, 斷熱特性을 賦與하는 新製品의 開發에 注力하고 있다.

또 食品添加劑는 베이비 푸드, 患者用 食品, 아이스크림 등에 쓰이는 것이고 紙分野에서는 풀(糊) 등에 대하여 새로운 方向에서 新製品을 目標로 研究中이다.

觸媒分野研究에서는 폴리올레핀用 新觸媒開發을 主題로 연구중이며 同研究는 폴리올레핀製造收率을 飛躍的으로 改善可能한 新觸媒開發에 主眼을 두고 있다.

現用觸媒는 條件에 따라 多少差異는 있으나 대체로 60~80% 範圍의 收率이 普遍的이며 연구중인 신촉매가 實用化되면 95%까지 收率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터널 등의 地盤強化劑로서 利用하는 硅酸이나 苛性소다를 混合하는 藥劑製造硅酸소다法과 斷熱劑로서 高性能을 지닌 로쿨技術의 연구도 進行中이다.

水處理用 逆浸透膜이나 이온交換膜, 洗劑, 漂白劑, 糊劑 등 各種化學製品의 發明, 太陽熱利用에 따른 水素製造研究 등 多彩로운 研究主題도 推進中이다.

同研究所의 故나타博士가 發明하여 노벨賞까지 受賞한 치그라型觸媒에 따른 폴리프로필렌製造法은 世界的인 기술이며 日本의 住友化學 등 여러 企業들이 導入하고 있다.

한편 逆浸透膜技術에 대해서는 日本의 帝人과 廢水處理用을 目的으로 한 共同開發이 추진중이며 태양열이용에 따른 水素製造技術은 各國에서 연구중에 있는 關心技術인 것이다.

研究所의 主體인 먼티디슨은 1981年 1월에 稅制面에서의 配處에서 從來의 事業部制를 廢止하는 대신 各各 獨立된 企業그룹으로 改編하였다. 그 主力은 石油化學部門의 먼티디슨 페트럴 키미카, 플라스틱關係에 먼티디슨 포리메리, 工業藥品과 助劑의 아우디먼트, 農藥의 팔모플란트, 醫藥의 페티먼트 등 化學部門企業들이다.

따라서 드네가니연구소는 먼티디슨의 企業競爭力을 間接的으로 支撐하는 셈이다. 물론 獨立採算運營制이며 피아트會社의 部品試驗 등 受託研究도 계속하고 있다.